

은사를 추모하며  
장학기금 기부하고  
멘토링으로 함께하다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글 | 이충환 동아에스앤씨 편집위원  
사진 | 남윤중 STUDIO 51

KAIST에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문의 참여도 적지 않다.  
그중 전산학부 동문인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기부가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은사 좌경룡 교수를 기리며  
'좌경룡-김범준 장학기금'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회사로 찾아가 그의 이력과 기부 사연을 들어봤다.





1999년 김범준 대표(가운데)가 석사 졸업식 날 좌경룡 교수(맨 왼쪽)와 함께한 모습. © 김범준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학원까지, 좌경룡 교수와의 인연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38층. 한쪽 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전망이 좋은 방에서 김

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만났다. 2017년 초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처음 사무실을 마련한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5년간 임직원이 5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증가해 다섯 곳에서 분산 근무를 해왔는데, 여기에 최근 롯데월드타워 38층과 37층의 ‘더(The) 큰집’ 사무실이 추가됐고, 김 대표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대표에게 KAIST에 기부한 의미를 물었더니,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비롯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같은 국내외 기업인의 기부 서약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김 대표는 특히 김 의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 김 대표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KAIST에 기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는 류석영 전산학과 학과장과 상의해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과 건물을 확장하는 용도로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올해에도 계속 학생들을 돕고 싶어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동시에 장학금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늦가을 은사인 좌경룡 교수님의 별세 소식에 마음이 아팠는데, 사모님에게 동의를 구한 뒤 ‘좌경룡-김범준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좌 교수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김 대표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91년 말 이듬해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참가할 국가대표로 뽑혀서 KAIST에서 6주간 정보올림피아드 대비 계절학교에 참여했는데, 이때 교장이 바로 좌 교수였다. 1992년 7

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전했을 때 지도교수도 역시 좌 교수였다. 좌 교수에 대해 김 대표는 “계절학교 교장으로 프로그램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신경 써 주신 따뜻한 분이였다”면서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전했을 때도 주최 측의 실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학생 편에서 주셨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연은 KAIST 대학원에서도 이어졌다. 김 대표가 KAIST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좌 교수의 ‘계산이론연구실’에 합류했다. 하지만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때는 대학교 때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박사 학위 과정 2년 차에 취업을 선택했다. 김 대표는 “석·박사 학위 과정에 올라가면서 전공 분야가 좁고 깊어져 고도화된 이론을 다루었는데, 이보다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었다”며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좌 교수님이 진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며 재밌게 하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티맥스소프트에 입사해 개발자의 길에 들어섰다.

“잘못을 통해 성장하느냐가 조직의 앞날을 가를 것”

김 대표의 첫 직장 티맥스소프트는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DBMS)을 비롯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회사였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DBMS다. 김 대표는 티맥스소프트에서 4년 정도 DBMS 티베로(Tibero)를 만드는 일을 했다.



좌경룡 교수님은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신경 써 주신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는 티맥스소프트에 이어 엔씨소프트, SK플래닛 등에서 일했다. 김 대표는 “당시 엔씨소프트는 게임 회사에서 탈피해 새로운 검색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인터넷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인력으로 2006년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위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3, 4년 했다. 그 뒤에는 데이터인포메이션센터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했다. 그는 “2010년 당시 온라인 게임에서 하루에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데이터로 게임을 재밌게 만들고 밸런스가 깨진 데가 어디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는 SK플래닛으로 옮겨 수학교육서비스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 김 대표는 “SK플래닛에서 수학교육서비스를 미국에 출시하고 싶어했다”며 “수학교육에 학생마다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문제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방향, 즉 어답티브 러닝을 도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사 후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학교육서비스는 안 하기로 결정되면서 BI(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추진단에 참여해 11번가 서비스 데이터의 고도화 작업을 했다. 그는 티스토어(원스토어)의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OK 캐시백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효과적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연동했다.

이후 2015년 그는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의 소개로 김봉진 의장을 만난 뒤 우아한형제들 CTO로 합류했다. 김 대표는 “데이터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냐, 또는 서비스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 효용과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이끌어 진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우아한수다타임’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김범준 대표(가운데).  
© 우아한형제들



행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직 이유를 설명했다. CTO로서 개발자들을 리드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 그는 크게 3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오늘의 레거시(구식 소프트웨어 시스템)는 어제 누군가의 최선이므로, 개발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김 대표는 “과거에 이룬 것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유산 덕분에 살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며 “지금의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 즉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작은 변화와 성공을 쌓으면서 확장해야 큰 변화와 성공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계속 일관되게 성장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김 대표는 CTO를 맡은 초기에 이틀간 ‘배달의민족’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아 업주들한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일을 소개했다. 그는 이때 모든 개발자를 모아놓고 “각자 1,000만 원짜리 수업을 받은 것이니, 이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하고 서로 느낀 것을 공유해야 한다”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직무유기이며, 잘못을 통해 성장하느냐가 조직의 앞날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일하고 싶어”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

2017년부터 그는 개발자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서비스기획자를 통틀어서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프로덕트부문을 맡았고, 2018년 10월부터는 회사가 하나의 사업과 프로젝트를 모두 맡는 구조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배달의민족’ 사업 부문을 맡게 됐다. 그는 “당시 ‘배달의민족’의 모든 레거시(시스템)을 바꾼 덕분에 2019년 4월부터 사업에서의 대응이 좀 더 쉬워졌다”며 “즉 새로운 기능, 새로운 상품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경쟁사 대응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말 우아한형제들은 독일의 음식배달 서비스 회사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이 결정됐다. 그는 당시 김봉진 의장으로부터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20년 1월부터 대표를 맡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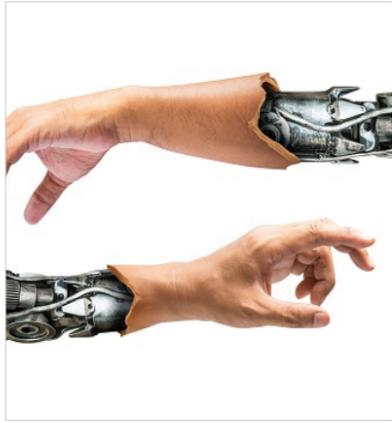
이후 김 대표는 조직문화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조직문화를 선포하는 일도 지양하고 있다. 그는 “구성원과 소통하며 함께 찾아 나갈 것”이라며 “조직문화는 조금씩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큰 성공의 경험으로 연결된다”며 “스타플레이어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묻는 것에 필요한 정보를 주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더라도 도움을 주려는 분위기를 중시한다는 뜻이다. 그는 “배려와 협동은 잘 발현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회사 차원에서 ‘우아한테크코스’라는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Pay It Forward(대가 없이 도움을 베푸는 것)’을 강조한다. 김 대표는 “우아한형제들이 선배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갚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1년에 80명에게 개발 교육을 해 수료하면 어느 회사든 도전할 수 있다. 그는 “IT 업계에 역량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의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KAIST 전산학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멘토링을 하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그는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마음이 전달되는 멘토링이 중요할 것 같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을 계획하거나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의지와 능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봉진 의장을 옆에서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배우는 능력임을 깨달았다”며 “책이나 사람,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열려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업도 계속 배우는 과정”이라며 “잘 안 될 때 본인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 배우겠다고 생각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멘토한테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물어볼 수도 있고, 사용자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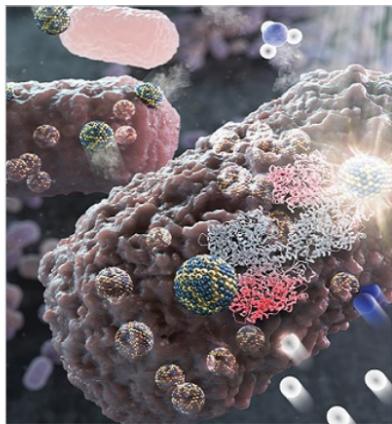
일하는 사람으로서 김 대표는 “나를 모르는 1000명의 사람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10명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일하고 싶어’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준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는다. 김 대표는 이런 내용을 최근 회사 내부의 컨퍼런스에서도 직원들과 공유했다. KAISTian



**사람처럼 느끼고 상처 치유가 가능한 로봇 피부 기술 개발**

KAIST 기계공학과 김경 교수 연구팀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넓은 면적에 대해 다양한 외부 자극 자극을 인지할 수 있으며, 칼에 베어도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로봇 피부 기술'을 개발했다. 기계공학과 박경서 박사가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6월 9일 출판됐다.

>> 더보기



**디스플레이 소재로 빛 이용해 친환경 암모니아 합성법 제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도창 교수, 이상엽 특훈교수, 박영신 연구교수 연구팀이 디스플레이 소재인 양자점(퀀텀닷)을 이용해 질소 고정 박테리아의 암모니아 생산 효율을 대폭 높였다. 연구팀은 양자점에 의해 흡수된 빛 에너지가 박테리아의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사용되도록 설계했으며, 그 결과 박테리아의 암모니아 생산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 더보기



**질병 세포만 찾아 교정치료 가능한 유전자 가위 시스템 개발**

KAIST 의과대학원 이지민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오승자 선임연구원, 강원대학교 이주용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질병 세포에서만 핵 내 유전자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시스템(CRISPR/Cas9)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전자 가위를 질병 세포에서만 기능할 수 있게 해 정상세포와 질병 세포가 혼합돼있는 실제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유전자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20큐비트급 소형 리드버그 양자컴퓨터 개발**

KAIST 물리학과 안재욱, 문은국 교수 연구팀이 20큐비트급 리드버그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계산과학의 난제인 최대독립집합 문제를 계산했다. 디지털컴퓨팅 알고리즘으로는 비효율적인 계산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인데, KAIST가 20큐비트급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NP-완전문제를 계산했다는 것은 한국의 양자컴퓨팅 연구가 세계적 양자컴퓨터 개발경쟁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 더보기



**전기및전자공학부 명현 교수 연구팀, 2022 ICRA서 열린 힐티 슬램 챌린지 2위 차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명현 교수 연구실 임형태, 송승원, 이준호 박사과정, 이승재 석사과정, 김대범, 김범수 인턴으로 이루어진 '팀 콰이스트(Team QAI)'가 '2022 ICRA'에서 열린 '힐티 슬램 챌린지 2022'에서 학생 부문 2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대회는 공사환경이나 특징점이 부족한 좁은 실내 환경, 어두운 환경 등 기존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동작할 수 있는 슬램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정확한 매핑을 하는 대회다.

>> 더보기



**최소영 생명화학공학과 연구교수, 로레알-유네스코 인터내셔널 라이징 탠런트상 수상**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소영 연구교수가 로레알과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신진 여성과학자상인 '인터내셔널 라이징 탠런트상'을 수상했다.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은 매해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여성 과학자 5인에게 세계 여성과학자상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 여성 과학자 15인에게 인터내셔널 라이징 탠런트상을 수여한다.

>> 더보기



**김소영 교수, 한국 과학정책 연구자 최초로 네이처에 기초과학 정책 기고문 게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가 지난 2일 우리나라 과학정책 연구자 최초로 '네이처'의 월드 뷰 섹션에 한국의 기초과학 정책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2022년은 UN이 선포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로서 동 기고문에서 김 교수는 그간의 기초과학 육성 정책을 되짚으며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기초과학의 내재적 가치와 과학자들의 내적 동기를 충분히 살리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더보기



**물리학과 배지는 석박사통합과정, 美 SPIE (국제광공학회) 2022 광공학 장학금 수상**

KAIST 배지는 물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미국 국제광공학회가 수여하는 '2022 광공학 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장학금은 광공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SPIE가 미래 광학 및 광자학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촉망받는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배지는 학생의 학술적 기여도와 잠재성이 크게 인정받았다. 배지는 학생은 KAIST 물리학과 이상민 교수의 지도를 받아 레이저 광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 더보기

PEOPLE

CAMPUS



**제3회 KAIST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 개최**

KAIST가 6월 16일 서울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제3회 KAIST 스타트업 테크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DB산업은행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박람회와 함께 진행됐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KAIST 스타트업 테크플라자'는 학교 내부 행사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와 협력을 통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개최한다.

>> 더보기



**포스트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며 뇌인지과학과 설립**

KAIST가 '뇌인지과학과'를 설립하고 뇌인지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및 교육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광형 총장은 작년 총장 취임식에서 KAIST 미래비전 중 포스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인간탐구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 뇌인지과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뇌인지과학과는 2023년 봄학기 석·박사과정 대학원 입시를 오는 7월부터 진행하고 현재 신입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

>> 더보기



**수요중심 디지털 혁신 리더 양성,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설립**

KAIST가 지난 수년간 획기적으로 발전한 기계학습,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했다.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은 구체적으로 제조, 금융, 의료, 복지 4개 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날 시청할만한 유튜브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확대받고 있는 아동을 미리 파악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등이 그 예다.

>> 더보기



**과기특성화대학, 국가정보원과 연구보안교육 협의체 발족**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6월 22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구보안교육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4대 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KAIST가 선도한 연구보안 교육모형을 전국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KAIST는 2021년 국정원의 자문을 받아 KIRD와 함께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연구보안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2022년 봄학기부터 교육하고 있다.

>> 더보기